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의 역할과 보천교의 독립운동

전광수*

경성대학교

【요약】

2019년은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종교를 탄압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은 1915년 포교규칙을 만들어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천도교, 보천교는 물론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를 중심으로 한 대종교 등을 유사종교로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민족종교의 역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망국과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과 민족의 단합을 이끌고 항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동학을 중심으로 교세를 펼쳐나간 민족종교 단체의 항일활동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당시 후천개벽사상은 억압과 수탈로 신음하는 조선인들에게 치유이자 희망이었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동학사상은 증산에 의해 그 정신이 지속되어 민족종교운동은 급속히 전파되었다. 차경석은 수운과 증산의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확대하여 암울하고 도탄에 빠진 식민지시대 백성들에게 후천개벽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독립군 군자금 모집과 항일독립운동을 결행한 주요 민족종교 가운데 하나였던 보천교를 창시한 핵심인물이었다.

주제어: 동학, 보천교, 민족종교,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I. 들어가는 말

토인비는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를 말살시키는 것

*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교수, pureas@hanmail.net

이 식민주의자들의 철학이다'고 하였다.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이후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크나큰 상처를 입으며 경술국치라는 오욕의 시절을 겪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이 두 주제는 우리 민족사의 거대 담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역사에는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에 관한 내용의 부족은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단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고, 단군세기를 지은 행춘은 '國猶形 史猶魂'이라 하여 나라는 사람에게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힘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하였던 호국영령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자유와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이 생길 것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민족종교는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구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학의 1세 교주 수운의 사망 이후 2세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에 이어 의암 손병희로 대표되는 천도교는 수운과 해월의 동학정신을 이어받아 민족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다양한 항일투쟁과 민족운동을 행사하였으나 역사 속에서 그 자취가 사라진 대표적인 종교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해 유사종교로 인식되어졌고, 전근대적이라는 이유로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고, 친일단체의 보도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사회풍조는 여러 분야에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시대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것은 전 근대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비하되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월곡 차경석은 동학접주였던 차치구의 아들로 일제강점기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1921년 '시국(時國)'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보천교의 초기 교명 '보화(普化)'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는 2018년 9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유토피아를 꿈꾸다, 정읍의 민족종교'라는 주제로 보천교 관련 전시회를 열었다. 이곳에 전시된 보천교 연대표를 살펴보면 처음 '1871년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에서 강증산 태어나다'로 기록되어 있고, 보천교의 창시자였던 차경석은 그 다음으로 '1880년 전라도 흥덕군 부안면 호암리에서 태어나다'로 기록된 사실을 통해 보천교의 연원은 그의 스승이었던 증산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천교 십일전(十一殿) 건물은 그 본소를 대

흥리에 두고 1925년부터 지어져 2만여 평 부지내의 45채 부속건물과 함께 당시 보천교를 상징해주는 대표적 건물이다.

보천교 본소에 대한 당시 기록을 보면 소위 대궐 정문은 보화문(普化門)이라고 쓰고 서울 광화문을 본떠서 층루(層樓)로 되어 있다. 그 안을 들어가면 바른손 편으로 총의 원이 있으며 규모를 크게 하여 수백 간씩 되고 공부할 곳과 회의실 같은 것이 설비되어 있다. 중앙으로는 경복궁의 근정전을 모방하여 십일전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 십일전은 토(土)자를 의미한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후천괘가 지천태괘(地天泰卦)이니 후천에는 흙이 왕성하리라하여 토자로 대궐을 지은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보천교 건물의 공비개산은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 150만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¹⁾

그렇다면 보천교는 동학과 천도교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보천교의 상징적 건물인 십일전에는 태극수 1과 무극수 10을 합한 십일의 조화로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조화사상이 들어있다. ‘시천주조화정’ 주문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모시고 조화를 받아 내린다는 교리는 보천교 수행론의 핵심이었다. 이 조화사상은 보천교의 뿌리가 최제우의 동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보천교의 교수 차경석의 부친은 전봉준 장군과 동학혁명을 주도한 동학 접주 차치구였다. 천도교의 전남북 순회관을 지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천교와 동학 및 천도교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²⁾

II.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과 보천교의 독립운동 자금지원

한 국가의 국권회복과 정부의 출범 그리고 대외 관계의 형성에서 영토나 국민의 구비와 같은 가시적인 요소 뿐 아니라 공통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동질감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³⁾

1911년 일제는 우리민족의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교에는 사찰령, 유교는 경학원 규칙, 기독교는 사립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탄압을 시작하였다.

1) 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65쪽 참조; 류광렬, 「사멸중의 보천교」, 『개벽』 제1호(서울: 개벽사, 1934), 65쪽 참조; 홍범초, 『범중산교사』(서울: 범중산교연구원, 1988), 121-123쪽;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전주: 신아출판사, 2010), 163-175쪽.

2) 남창희, 「한미동맹의 민중적 기원, 보천교의 항일 전략과 비전」,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440-441쪽 참조.

3) 남창희, 「한미동맹의 민중적 기원, 보천교의 항일 전략과 비전」,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476쪽.

말하자면 일제는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회유와 같은 정책을 통해 그들의 종교 활동 통제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동화를 위한 교화, 식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데 앞장서게 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통해 조선의 종교들을 친일화해 나갔다.⁴⁾ 일제의 이러한 종교정책은 1911년 시정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종교 취체에 관해서는 명치 39년 ‘통감부령’ 제45호로 내지인의 종교 선포수속 절차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천도교, 시천교, 대종교, 대동교, 태극교, 원종종무원, 공자교 등의 여러 종이가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⁵⁾

이후 일제는 신종교에 대한 강압적 통치를 위해 1915년 포교규칙⁶⁾을 반포하고 유사종교⁷⁾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민족종교 탄압을 계획적으로 감행하기에 이른다. 일제의 이 같은 탄압의 원인은 민족종교가 곧 민족운동의 근원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은 일본 메이지시대의 종교정책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일본은 자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도 국교화 정책을 통해 신도를 국가종교로 만들어 천황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종교정책을 고스란히 우리 민족종교와 결부시켜 탄압하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일제는 국교화 하였던 신도를 중심으로 민중을 조직화하고 내선일체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황국신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요시카와 분타로는 종교유사단체를 거론함에 있어 조선의 신종교를 다음과 같이 폄하하였다. “신앙의 기초가 빈약하고 진정 경건한 신념에 의한 운동이 아니다. …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동일한 주의를 표방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한 것이다. … 특히 천도교 등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의 대부분은 진정한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온전히 미신으로 이루어진 것 혹은 유지자의 모임에

4) 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82쪽 참조.

5)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 명치 44년(1911), 77쪽, 국학자료원, 1983.

6) 제1조(조선총독부령 제83호 1915. 08. 16)에서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도(佛道) 및 기독교를 이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일제의 유사종교정책으로 위 세 가지 종교 외에는 조선총독부가 민족종교들을 유사단체로 구분하여 자유로이 탄압을 할 수 있다는 의도였다.

7) 포교규칙 제15조(조선총독부령 제83호) ‘조선총독은 필요한 경우에 유사종교단체라고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얼마간의 미신적 신념이 가미되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⁸⁾고 하였다.

무라야마 지준은 중요한 종교유사단체는 천도교, 시천교 및 보천교라 하면서 “유사 종교단체가 성격상 대부분 비밀 결사적”⁹⁾이라 하였다. 난잔타로도 직접적으로 “조선 내의 비밀결사란 바로 종교 유사단체를 일컫는다.”¹⁰⁾고 하며 비밀결사를 소유한 종교 유사단체들 중 하나로 보천교를 지적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유사종교 교단을 곧 비밀결사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보천교가 자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¹⁾

조선총독부의 『조선의 유사종교』에 의하면, 일제 강점 당시인 1910년 유사종교의 교단은 동학계인 천도교를 위시하여 증산계, 불교계, 승신계, 유교계 등이 있었고, 식민지 상황 하에서도 유사종교는 계속 증가하여 1919년에는 강점 당시에 비해 1.4배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¹²⁾ 그러나 이들은 ‘포교규칙’에서 공식종교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통감부 시기의 보안법(1907)과 집회취체에 관한 건(1910)의 적용을 받았고, 경찰의 강력한 단속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유사종교 중 일제가 가장 주목한 단체는 천도교와 대중교였다. 천도교는 강점 후 국권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항일운동보다는 장기적인 민족종교와 실력양성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을 채택하여 1910년 12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는 등 전국에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육에 주력하였다. 대중교는 만주지역으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이들 종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었다.¹³⁾

보천교는 교단 초기에는 큰 감시가 없었으나 1920년대에 이르러 교단의 정비와 포교에 주력하면서 당시 민족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의 포교규칙 시행과도 맞물리면서 친일적 언론정책에 동조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은 당시 유사종교라 하여 일본의 포교규칙에 따라 보천교를 비롯한 우리 민족종교 단체의 활동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보천교 관련 기사 265건 가운데 내홍(혁신운동, 시국대동단 연설회 성토) 52건, 시대일보는 보천교 검거사건 20건, 교주 천자등극설 7건, 흑세무민 18건, 보천교 해체 13건, 사회구호 2건, 기타 보천교 비판 33건 등이었다. 그런데 독립운동

8)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 1921, 305-306쪽.

9)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1쪽.

10) 南山太郎, 「秘密結社の解剖(一)」, 『朝鮮公論』 112호, 1922.

11) 김철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천교의 항일 민족운동」,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16쪽 참조.

12)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524-550쪽.

13) 김철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천교의 항일 민족운동」,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14쪽.

관련 보도는 12건이 채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 기사였다. 비록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긍정적 내용의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독립운동 4건, 기부 1건, 물산장려운동 2건이었고, 조선일보는 독립운동 12건, 사회구호 2건에 지나지 않는다.¹⁴⁾

당시 언론이 일제로 하여금 보천교를 공공연하게 탄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의 전형적 이유는 보천교가 흑세무민,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일제가 보천교를 비롯한 신종교를 유사종교나 사교로 규정한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총독부의 한국 신종교 말살정책에 착색한 계몽주의적 위장에 언론이 동조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언론은 민족종교를 유사종교 및 사교와 같은 사회악의 존재로 취급하였다. 한국 언론은 일본 총독의 명령이 만든 경기규칙을 관중에게 선전하는 도구였다.¹⁵⁾

이렇듯 축소시킨 독립운동에 대한 기사와는 다르게 보천교는 민족 독립운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 30명 중 임경호, 주익 등 4인이 보천교 간부였고¹⁶⁾, 주익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에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23년 상해에서 개최된 한민족국민대표회의에 천도교 대표자 3명을 비롯해 보천교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배치문, 김종철, 강일이 있었다.¹⁷⁾ 보천교 청년회 대표였던 강일은 만주지역 의열단에 입단하여 군자금 모집과 일제의 중요 기관 폭파 및 요인 암살 등을 실행 결의 하였고, 김원봉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에 대한 밀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배치문은 1924년 한성은행 폭파 미수사건 이후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을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1924년 11월 일본 관동청 경무국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이었던 김좌진 장군과 그의 참모였던 유정근과 보천교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보천교가 독립운동에 군자금을 지원한 점은 일제의 자료로도 뒷받침된다.¹⁹⁾ 더욱이

14) 노종상, 「누가 ‘보천교 죽이기’에 가담하는가」,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20쪽 참조.

15)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7), 70-72쪽 참조.

16) 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서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참조.

17) 배치문과 강일은 의열단에 가입하여 1924년 1월을 기해 도쿄에 결사적인 투사를 파견하여 일제대관을 암살하고 중요 건물을 폭파할 목적으로 그 계획에 착수하였다. 의열단의 제3차 폭동계획으로 불리는데 이 계획은 결국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끝났는데, 배치문은 무죄, 강일은 징역 2년을 언도 받았다. (<동아일보>, 1924. 2. 24). 공신 제158호(1923. 2. 14), <불령선인 국민대표회의의 근황에 관한 건>에 보천교 진정원 소속 김종철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으나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록은 찾지 못했다.(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70쪽 각주 참조).

18) 의열단은 비폭력투쟁인 3·1운동이 일본의 폭력으로 실패한 것을 보았으므로 광복을 위해 폭력만을 수단으로, 암살만을 정의로 삼았다. 따라서 5개소의 적 기관(조선총독부·동양척식주식회사·매일신보사·경찰서·기타 중요 기관)과 7개 악(총독 및 총독부 고문·군 수뇌·타이완 총독·친일파 거물·밀정·반민족적 토호·열신(劣紳)·행실이 못된 악덕 인사)의 제거를 위한 파괴활동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임종국, 『실록 친일파』(서울: 돌베개, 1991) 참조.

19) <김좌진 일파의 행동>, 關機高授 제32743호(기밀 제1199호), 1924년 11월 10일자; 윤창열, 「일

김좌진장군은 보천교 교주 차경석을 북만주로 이주시켜 보천교의 자금력뿐만 아니라 만주로 이주하는 보천교도들을 독립군으로 양성할 계획이었다. 비록 차경석을 만주로 이주시키지는 못했으나 1924년 보천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²⁰⁾

근년 김좌진은 자금 부족 때문에 부하를 해산하여 전혀 활동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번 봄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 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초순 교주 대표 모(某)가 영고탐에 와서 2만여 엔의 군자금을 주었다. 이로써 김좌진은 이 돈으로 옛 부하를 소집해 삼차구에 근거를 두고 포교와 무장대의 편성을 계획해 동지를 인솔해 동년형에 들어가려 했다.²¹⁾

일제 경무국 보고 내용에 의하면 보천교는 상해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독립운동자금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천교의 독립운동은 1920년대 국권 회복운동의 참여, 1921년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 11만원을 지원하려다 전주 일경에게 압수당한 사건, 1924년 김좌진 장군의 대한독립단에 군자금 5만원 지원, 1925년 상해임시정부 정의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보천교는 2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6백만 신도가 운집한 민족종교 단체였다.²²⁾ 보천교 세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192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조선의 인구는 1994년 통계청에 따르면 약 1천8백만 명이였다.²³⁾ 이러한 상황은 1919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족 최대 규모의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보천교 교주였던 차경석은 일제에 의해 ‘갑종 요시찰인’²⁴⁾으로 지정되어 총독정치에 불응한 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지정하였던 감시의 대상자가 되었다.

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71쪽.

20) 이성우, 『민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김좌진』(서울: 역사공간, 2011), 135쪽.

21) 〈김좌진 군자금을 얻다〉, 關機高授 제32743호(기밀 제1148호), 1924년, 11월 26일자.

22) 윤이흠 교수는 보천교에서는 10명을 포교해야 간부가 될 수 있었다는 계산에 근거하여 신도수를 600만으로 추산한 바 있고(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7, 241쪽.), 박준식 교수는 300만에서 600만을 최소와 최대치로 추정하였으며(박준식, 「정읍과 한국의 신종교 운동」, 『전북의 역사문화전 VI 정읍, 논고』, 서울: 통천문화사, 2006, 248쪽.), 기타 일본 총독부 비밀자료에도 보천교가 한때 신도수 600만 명을 주장한다고 하였으며(朝鮮總督府, 『普天敎一般』, 1926.), 무라야마 지준의 연구에서는 1920년대 한때 간부만 55만으로 총 신도수가 수백만에 달했다고 하였다(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312쪽.)

23) 박정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서울: 한국인구학회, 2009), 32쪽.

24) 실제 차경석은 3·1만세운동 이전인 1917년 4월 24일 일제 총독부에 의해 갑종 요시찰인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과 1915년에도 ‘조선독립’, ‘황제등극’ 등의 명목으로 고발되어 구금된 적이 있었다. 자세한 김철수, 「1910-1925년 식민권력의 형성과 민족종교의 성쇠-『보천교일반』(1926)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4-2(전북: 한국종교학회, 2014)를 참조하시오.

III. 보천교의 항일운동

동학을 중심으로 교세를 펼쳐나간 민족종교 단체의 항일활동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 민중들에게 종교는 단순한 신앙 이상이였다. 특히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보천교의 후천개벽사상은 억압과 수탈로 신음하는 조선인들에게 치유이자 희망이었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의 동학사상은 증산에 의해 그 정신이 지속되어 민족종교운동은 급속히 전파되었다. 차경석은 수운과 증산의 가르침을 정치적으로 확대하여 암울하고 도탄에 빠진 식민지시대 백성들에게 후천개벽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곧 유사종교는 혁명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19세기 말의 동학혁명,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생했던 3·1만세운동과 같은 반일운동으로 확산되기 쉬운 비종교적인 단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²⁵⁾ 일제가 식민권력에 의해 유사종교를 보는 시선은 『조선의 유사종교』에 기록된 다음의 내용을 통해 더욱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신흥 유사종교는 항상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근세 이후의 조선 사회운동에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운동이 조선사회의 진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유사종교단체의 대부분이 이름을 종교라고 빌린 정치운동 단체라는 세평은 종래 자주 들은 바이지만 민족의식을 환기시키고 선동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중의 환심을 삼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편으로 활약하는 듯이 위장하여, 다투어 이 민족의식을 자극하고 교도의 획득에 노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세의 확립에 매진한 것이었다.²⁶⁾

그렇다면 이러한 신흥 민족종교 가운데 보천교는 독립운동 자금과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많은 신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보천교에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신도수가 몰리게 된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갑오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에서 시작된다.

1894년 정읍에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그것은 반봉건, 반외세를 외친 민중들의 자주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은 일

25) 무라야마 지준은 유사종교의 '사상적인 영향'을 다루면서 '혁명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의식을 농후하게 하였다'는 교단을 88개 교단 중 51개 교단을 헤아린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식민권력에 협조적인 유사종교 교단은 총 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적은 수였다.(김철수 위의 논문, 315쪽.)

26)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2, 845, 857-858쪽.

본군과 관군에 의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조선이 일제에 의해 주권과 영토를 강탈당한 사이 그 많던 동학교도들은 새 세상을 열망하던 수많은 민족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모든 민족종교는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말 부패한 지배층 아래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의 고통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이어지게 되었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은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개벽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을 타고 당시 생겨난 신흥종교는 7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동학사상을 이어받은 민족종교들 가운데 두드러졌던 종교는 증산교였다. 증산교는 동학의 창시자 수운의 개벽사상을 계승한 증산 강일순이 창시한 종교였다. 동학농민혁명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증산교로 모이게 하였고, 신도들 대부분은 동학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다. 이후 증산은 1907년 차경석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차경석은 증산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서 보천교 창시의 출발점을 이루게 된다.²⁷⁾

둘째, 보천교 차경석의 천자등극식을 들 수 있다.

앞서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를 통해 왕을 황제로 극상 시키고, 원구단에서 고천제를 올리며 중국에 대한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차경석은 1921년 경남 함양군 황석산에서 천제를 올리는 의식을 통해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된다.²⁸⁾ 당시 보천교는 일본의 패망과 동학의 개벽사상을 잇는 상생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민족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중심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차경석의 부친 차치구는 전봉준 장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였던 인물가운데 한사람이었다.²⁹⁾

일제강점기 종교계가 국권회복을 위해 일으킨 제주도 최초의 최대 규모 무장투쟁으로 제주 법정사 항일 무장봉기와 조만식의 권총단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제주도에서 엽총과 농기구로 무장한 단체가 중문주재소를 불 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경찰들과의 투쟁이었다. 보천교와 불교의 연합적 투쟁으로 볼 수 있는데 일제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27) JTV 전주방송, 「전북의 발견」, 2018년 8월 2일자, '사라진 민족종교 보천교의 재발견 1부'(https://jtv.co.kr/2012/?r=home&c=8/403/404&p=2).

28) 동아일보, 1922. 10. 26, '자칭대시국황제'라는 제목으로 태을교주 차경석이 국호와 관제를 발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사화 하였으나 이것은 천자등극식이라는 종교적 제례를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29) 전북 정읍시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전시된 내용 중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세력으로 보천교를 평가하고 있다.

대정 7년(1918)에 국권회복의 미명하에 차경석 및 경북 영일군 출신 김연일 등이 서로 모의하여 동년 9월 19일 구 맹란분회때 제주도 법정사에 교도 30명을 소집하여,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는 관리는 물론 상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가혹하게 대우하였다.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 민족의 원수이다. 조만간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이니 교도는 우선 첫 번째로 도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관리를 살육하고 그 후에 상민을 섬 밖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교하였다.··· 6일 밤부터 제주성 안으로 향하여 행동을 개시하고 도중 전선을 절단하고 또 일본인 의사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음날 7일 아침 중문리에 도착하여 동지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방화·전소시킨 사실이 있다.³⁰⁾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체는 보천교가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¹⁾

보천교 고위 간부였던 김홍규는 탄허스님의 부친으로 당시 보천교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는 2005년에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하고 건국포장에 추서하였다. 동아일보는 태을교 간부의 비밀회의 발각과 상해임시정부에 보낼 계획이었던 십만 원의 군자금 내용과 검거내용을 기사³²⁾로 내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듯이 김홍규는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한 독립 운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1922년 전남 고흥에서 보천교 집회를 감시하던 일본경찰에 의해 교인 한명이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³³⁾이 발생하였지만 총을 쏜 해당경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천교도 간부들만 체포³⁴⁾되어 소유죄, 보안법위반, 직무방해죄, 치안법 위반 등으로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일제는 많은 조선인들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였고, 종교단체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와 감찰을 하던 일제는 보천교를 종교로 위장한 독립조선독립 운

30) 高警 제36610호(1919. 12. 26), 〈태을교도 검거에 관한 건〉(전라북도지사 보고 요지).

31)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로는 불교 주도설이 다수였으나 최근 선도교, 태을교, 보천교 주도설이 제기되고 있다. 윤소영은 새로운 자료를 통해 김연일을 승려가 아니라 승려 외피를 두른 태을교 간부급 신자였으며, 또 당시 태을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어서 불교를 포교의 근거지 및 외피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도 세력을 태을교·보천교라고 주장하였다.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1(파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을 참조하시오.)

32) 동아일보 1921. 10. 29.

33) 동아일보. 1922. 8. 19.

34) 동아일보. 1922. 8. 23.

동단체로 규정하는데 당시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³⁵⁾

각 방면에 걸쳐 포교와 입교를 권유하면서 태을교를 신앙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쾌유하며 건강해지고 또한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이는 조선 독립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종교는 공공연하게 신앙하는 일이 가능해졌다.³⁶⁾

대정 10년(1921) 3. 31일 고경 제9437호에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원의 검거〉 내용이 나오는데 ‘태을교에 의지해 독립을 계획해야만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 이를 믿고 8인조 2조를 조직해 닭의 피를 마시고 단결하여 그 목적 달성을 맹세한 이래 범죄를 계속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 보천교의 60방주 간부조직 체계이다. 이 조직체계는 기존의 24방주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60방주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매방(每方)이 각각 6임을 두는 조직구조이다. 60방주 하부를 구성하는 인적 자원은 방주 60명, 6임 360명, 12임 4,320명, 8임 34,560명, 15임 518,400명이므로 총 557,700명에 이른다. 이를 기초로 당시 보천교 신도수가 600백만에 이른다는 주장은 1925년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 밀러의 워싱턴 국무성 보고서³⁷⁾의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IV. 맺는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민족종교는 망국과 도탄에 빠진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민족의 단합을 이끌어 항일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일제강점기 민족종교가 담당하였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보천교를 비롯한 조선의 근대 신종교는 어수선한 세상에서 살아간 민중의 생활 요구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민중의 종교의식에 의해 성장하고 민중의 생활사상에 이끌려

35) JTV 전주방송, 「전북의 발견」, 2018년, 8월 9일, ‘사라진 민족종교 보천교의 재발견 2부’(https://jtv.co.kr/2012/?r=home&c=8/403/404&p=2&uid=2107757)

36) 대정 8년(1919) 12. 26. 高警 제36610호.

37) 보천교에 관한 국무성 기록은 미 국무부 소장 한국 관계 문서로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총영사 Ransford S. Miller가 1925년 5월 25일 작성한 것으로 제목은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and organizations in Chosen-The Public Safety Act〉로 되어 있다.

활동하였다. 민중을 희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현실적 생활의식을 반영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 교의와 중지도 바로 민중의 전통적 신앙의식의 표현³⁸⁾이었을 뿐이며, 보천교 해체 이면에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정치적 손길, 식민정책이 있었고,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폭압적 종교정책의 결과³⁹⁾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차경석 사망 후 일제는 보천교를 강제해산 시키고 보천교 건물들에 대한 경매와 철거를 시작하였다. 당시 십일전 건물은 일본인에게 경매로 넘어갔지만 불교계에서 이를 사들인 후 1938년도에 이축 복원하여 지금의 조계사 대웅전 건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보천교 본소의 정문이었던 보화문을 해체시켜 재건축하여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정신을 통합하여 독립운동을 지향한 보천교의 건물은 이처럼 해체되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종교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정읍의 접주였던 차경석의 부친 차치구의 영향으로 힘없는 민중의 편에 서서 새 세상을 꿈꾸었고, 증산과 의암을 만나 무극대도의 참뜻을 펼치려 하였고, 끊임없이 독립군자금을 모금하고 지원했던 보천교를 통해 오늘날 민족종교에 대한 이해와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 대전: 상생출판, 2018.
- 김철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과 보천교의 항일 민족운동」, 『보천교 다시보다』, 대전: 상생출판, 2018.
- 김철수, 「1910-1925년 식민권력의 형성과 민족종교의 성쇠-『보천교일반』(1926)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4(2)(전북: 한국종교학회, 2014)
- 남창희, 「한미동맹의 민중적 기원, 보천교의 항일 전략과 비전」, 『보천교 다시보다』, 대전: 상생출판, 2018.
- 류광렬, 「사멸중의 보천교」, 『개벽』 제1호, 서울: 개벽사, 1934.
- 박정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32(2) (서울: 한국인구학회, 2009)
- 박준식, 「정읍과 한국의 신종교 운동」, 『전북의 역사문화전 VI 정읍, 논고』, 서울: 통천

38) 村山智順 著, 최길성 외 역, 『조선의 유사종교』(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879-881쪽 참조.

39) 강영한, 「일제의 보천교 탄압과 해체」, 『보천교 다시보다』(대전: 상생출판, 2018), 372쪽.

- 문화사, 2006.
-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응전」, 『신종교연구』 제4호(경기: 한국신종교학회, 2001)
- 윤소영, 「법정사 항일운동 주동세력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1호(파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7.
- 이성우, 『민주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김좌진』, 서울: 역사공간, 2011.
- 임종국, 『실록 친일파』, 서울: 돌베개, 1991.
- 홍범초, 『범증산교사』, 서울: 범증산교연구원, 1988.
- 村山智順 著, 최길성 외 역, 『조선의 유사종교』,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 1921.
- 南山太郎, 「秘密結社の解剖(一)」, 『朝鮮公論』 112호, 1922.
- 동아일보, 1922. 8. 19.: 1922. 8. 23.: 1922. 10. 26.
- 〈김좌진 일파의 행동〉, 關機高授 제32743호(기밀 제1199호), 1924년 11월 10일자.
- 〈김좌진 군자금을 얻다〉, 關機高授 제32743호(기밀 제1148호), 1924년. 11월 26일자.
- JTV 전주방송, 「전북의 발견」, 2018년 8월 2일, ‘사라진 민족종교 보천교의 재발견 1부’(<https://jtv.co.kr/2012/?r=home&c=8/403/404&p=2>)
- JTV 전주방송, 「전북의 발견」, 2018년, 8월 9일, ‘사라진 민족종교 보천교의 재발견 2부’(<https://jtv.co.kr/2012/?r=home&c=8/403/404&p=2&uid=2107757>)

원고접수일: 2019년 6월 22일 심사일: 2019년 7월 12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20일

연구자 소개: 전광수

- ① 전공: 동양철학, 종교철학, 법철학 / 소속과 직위: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조교수
 - ② 관심영역: 동양철학, 종교철학, 인간학
 - ③ 주요논저: 『다산의 인성교육과 실행리더십』, 「유가 천명의 역학적 해석 - 천명과 인성론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천부경과 삼일사상의 관계성 연구 - 동학에 내재된 천지인 삼재를 중심으로」, 「다산 정약용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판례 연구 - 다산의 법철학적 인식과 법윤리를 중심으로」
 - ④ E - mail : pureas@hanmail.net
-

Abstract

A Role of National Religion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Bocheongy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Jeon, Kwangsoo

Kyungsung University

2019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visional government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The Choseon Governor-General's policy to suppress ethnic religion was established in 1915 and only Shindo, Buddhists and Christians were recognized as religions. The two religions, Cheondogyo and Bocheongyo, which inherited the spirit of Donghak, as well as Daejonggyo, which focuses on the Bukro-military regime of General Kim Jwa-jin, have become similar religions. The most prominent of the roles of ethnic religion was to convey a message of hope to the people who were devastated and robbed of their country, to lead the unity of the people an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Anti-Japanese activities by ethnic religious groups, which have spread around Donghak,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until now, and have reached today. At that time, the Huchongaebyuck idea was a healing and hope for the people who groaned with oppression and extortion. Suwoon's Donghak Thought, which led to Donghak, was carried on by Jeungsan, so that the national religious movement spread rapidly. Cha Kyung-suk politically expanded the teachings of Suwoon and Jeungsan. As a result, it delivered the message of Hucheon's hope to the grim and broken colonial people, and was a major ethnic religious group that organized the independence army's military fund-raising and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Donghak, Bocheongyo, National religion, Independence movement, Japanese colonial era